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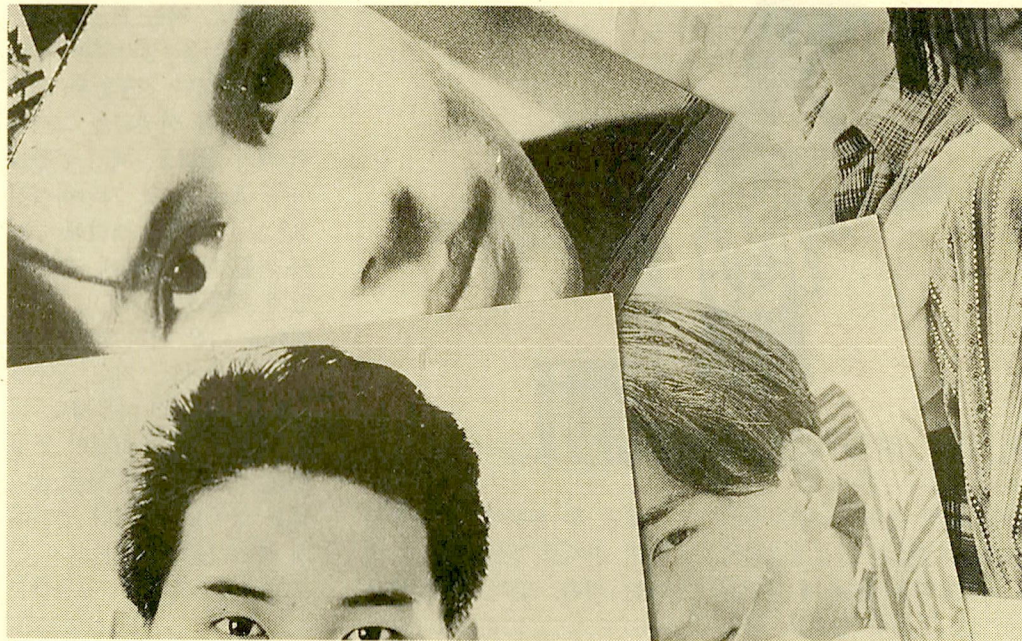
남성들도 미용성형 유행병 앓는다

‘떡두꺼비’ 남성상 사라지고 여자같은 예쁘장한 얼굴 인기

연예인들이나 사고를 당해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어 성형수술을 받던 예전의 남성들과는 달리 예뻐지기 위한 남성들로 장안의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성형외과의 성수기는 방학철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드는 남자 ‘환자’들로 문턱이 닳는다고 한다. 성형외과가 밀집해 있는 서울 명동의 제일 백화점과 사보이호텔 사이의 거리,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신사동 사거리 주변 등의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 가운데 남자는 10% 정도. 혹이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재건성형수술’ 환자들이 병원을 찾던 예전에 비해 미용성형을 원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명동의 A 성형외과 의사는 모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을 수술했다. 그 남학생은 보기에는 그다지 못생긴 얼굴이 아닌데 “코와 눈이 못생긴데다가 얼굴이 각져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다”며 고민한 나머지 우울증까지 앓아야 했다고 한다. 이런 외모 콤플렉스는 매사에 자신없고 위축된 모습으로 김군을 몰고 갔고 보다 못한 부모들이 서둘러 성형외과를 찾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기수 서모 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사각진 턱을 깎아 얼굴을 동그스름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



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약간 뭉툭한 코를 높게 세우고 작은 눈을 쌍꺼풀지게 수술을 했다.

김 군을 수술한 의사는 “청소년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쉽고 숭배대상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3년 지난 뒤에 다시 와서 얼굴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어지간하면 설득을 해보지만 평생 얼굴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야 하느냐며 애걸할 때는 할말이 없다”고 한다.

코 높이는 수술 가장 많아

이런 사례는 비단 청소년에게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시즌을 맞거나 대입 시험을 마친 남학생들의 경우도 ‘좋은 이미지’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다. 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백색인종’ 사이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성형 수술로 미리 제거하기도 한다고. 면접시험이 중요한 관건이 되면서는 ‘역상’을 바로잡으려는 환자들도 함께 늘었다. 눈썹술이 적은 남성들은 눈썹 이식수술을 하고 이마가 좁아서 답답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이마의 피부를 잡아당겨 이마를 넓게 보이게하는 이마 확장수술을 한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광대뼈를 깎아내고 눈꼬리가 치켜져 올라간

사람들은 눈꼬리를 잡아내리는 수술을 한다.

강남의 B 성형외과의 한 의사는 “환자들이 수술 결과에 만족한 경우는 대개가 언뜻 보기에 여성처럼 보일 때”라고 말하며 “영화배우 누구처럼, 홍콩배우 누구처럼 해달라는 식의 까다로운 주문을 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가 곤혹스럽다”고 한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해당 배우의 커다란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주문한다는 것. 환자들이 들고오는 샘플은 대개 인기연예인들이 대부분인데 중고등학생들일 경우는 서태지 김민중 장동건 씨 등이 주

류를 이루고 2,30대 50대의 경우는 브로마이드를 들고오는 일은 없지만 텔런트 모모를 지칭하며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남성 성형수술의 경우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코’수술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들은 “코가 남성의 상징과 관련이 있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요즘에는 50대의 남성들도 자주 성형외과를 은밀히 찾는다. “이마의 주름살과 눈 밑으로 처진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한다”고 전하는 이 의사는 “한마디로 젊어지고 싶은 50대에서 면접을 앞둔 20대에 이르기까지 특정계층이 따로 없이 아름다워지고자 해 매일 바쁘다”고 한다. 수술비용은 쌍꺼풀 수술은 8,90만원, 실리콘이나 인조뼈를 삽입해 코를 높이는 경우는 90만원에서 1백만원, 광대뼈를 깎아낼 경우에는 4백만원 정도가 든다.

70대의 장·재계 인사들에게도

은밀히 ‘젊어지는 수술’을 해준 적이 있다고 귀띔하는 이 의사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아 부작용 염려가 있고 노년층은 피부가 노화돼 수술의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위험 소지가 있으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한 것 같다”며 “이런 일련의 현상은 여성의 외모만을 중시하던 사회의 풍조가 남성에게까지 전이된 것이며 이와같은 추세로라면 남성의 여성화는 급격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형이나 흉터 수술외에는 절대로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한 의사는 “이러다가는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가 근육을 자랑하는 대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없는 통합 타이틀 형식의 미모를 자랑하는 대회로 성격이 바뀔 것”이라며 “실력과 인격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 조성에 관계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순 기자)